

② 코트디부아르, 궁금한 이야기

회원님의 후원으로 코트디부아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벨빌(Belle-Ville) 지역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도로, 수도, 배수 등 기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힘든 곳입니다.



벨빌 초등학교 전경

2001년, 황무지 같았던 벨빌의 코코넛 밭에 광기증 프로젝트 매니저와 벨빌 초등학교의 손희실 이사장 부부의 노력으로 벨빌 초등학교(Ecole Primaire Belle-Ville)가 세워졌습니다. 학교를 열자마자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400여명의 아이들이 입학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학교가 부족했고,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로 몰려온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운영과 아이들은 학업에, 부모는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연간 소정의 학비(한화 약 8만원)를 받아야했지만 이마저도 여유가 없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굶는 아이들, 아픈 아이들, 기생충이 배에 가득한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데 역력이 되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급식

그러던 중 2013년 말 밀알복지재단과 협력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50여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실이 리모델링되었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급식과 간식, 비타민, 구충제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학업 증진을 위해 학용품 및 학비가 지원되었고,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한 특별활동, 현장학습, 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서비스는 '급식'이었습니다.

하루의 한 끼라도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학교에서 먹는 밥이 가장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학교에 식당이 마련되지 않아 모래밭인 운동장에서 식사를 하지만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코트디부아르에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지원과 사랑이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 1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 과정을 거쳐 2014년 12월 셋째주에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날 아동에게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 2015년부터는 성장발달보고서가 연 중 1회 발송되고, 정기 감사편지가 연말 크리스마스카드로 변경되어 12월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첫번째 이야기

코트디부아르 사업장 소식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은 비타민을 참 좋아합니다. 효능은 잘 모르지만 비타민을 복용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3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비타민을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은 토래에 비해서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콧물을 흘리거나 배가 불룩 나오는 증상, 눈 밑이 허혈게 변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각 교실에서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려 비타민을 받아먹은 아이들은 새콤달콤한 맛 때문인지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비타민뿐만 아니라 정기 신체검사와 구충제 및 각종 백신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비타민
지원

동물원
현장학습



2014년 6월, 400여명의 벨빌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동물원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5대의 대형버스에 나누어 탄 아이들은 설 새 없이 수다를 떨며 신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차량으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물원은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동물을 처음 보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여러 동물들을 실제로 보고 만지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코끼리는 아이들 자신의 간식을 나누어 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견문을 넓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활동
실시



이곳에는 정규 미술수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 그리기 주제는 얼마 전에 현장학습으로 다녀온 동물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동물원에서 보고 느꼈던 감정과 기억들을 되살려 제각각의 동물들을 그려냈습니다. 글이나 말보다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낸 아이들은 기발하고 재미난 상상력으로 웃음을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하고 충분한 미술도구를 마련하여 아이들의 미술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더 흥미를 가지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14년 6월, 벨빌 초등학교에서는 신나는 여름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1회 소규모로 진행되었던 여름캠프가 회원님의 후원 덕분에 규모 있게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교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고 선생님께 좋은 말씀을 들으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강당, 교실, 운동장에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가장 좋아했던 장애물 넘기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였으며, 고학년 아이들은 상대팀의 발목에 매달린 풍선을 터뜨리며 팀 별로 하나 되어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단체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며 배우는 협동심과 사회성 역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여름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름캠프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편지



저는 아동을 아동답게 이끌어 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때에 공부를 하고 사회 규범을 배우야 하지만 코트디부아르의 아동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 늘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에 가야 할 나이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일이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일부터 배워버린 아동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가난과 무지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를 장식품처럼 생각하던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가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알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한 후 회원님의 후원을 통해 늘어난 혜택들로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아동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로 양육하고 교육한다면 코트디부아르의 미래는 밝아지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코트디부아르 벨빌 초등학교 손화실 이사장 드림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COMING
SOON

▶ 도서관 만들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책 읽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2014년 1월부터 시작되었던 도서관 만들기를 지속할 예정

▶ 학용품 지원

2014년 11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개인 학용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절약하는 방법도 함께 교육할 예정

▶ 운동회

2014년 11월 다양한 운동 종목을 통해 신체를 단련시키고 아동 간의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회를 진행할 예정

▶ 신체검사

2015년 1월 정기 신체검사를 통해 기초적인 신체발달사항을 조사하고 질병여부를 점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예정